

# 전북도, 2456억원 긴급 추경 편성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처음으로... 도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편성한 도의회에 제출

전북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착한 임대인 이차보전 등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화 방안을 담은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관광업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출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 2,456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3일 제출했다.

이번 긴급추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착한 임대인 지원과 코로나 확진자 방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점포임대료를 지원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 지원 확대 등도 파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대책, 민생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가 추가 내시한 국고보조사업도 최대한 반영했다.

회계별로는 추경규모 2,456억원 중 일반회계가 2,438억원(3.9%), 특별회계 12억원(0.2%), 기금 6억원(0.06%)이 편성됐다.

경제안정분야에 ▲연매출 2억원이하 도내 소상공인 6만명을 대상으로 3개

월 동안 공공요금을 지원하는데 185억원을 편성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으로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자의 분담금 전액인 1인당 연 평균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115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임대료 5억원 편성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인에게 특별보증 이차보전 3%를 지원 ▲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별보증 이차보전 2~3%를 지원하는데 31억원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과 2%의 이차보전을 위해 36억원을 반영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를 위해 국비 4%와 도비 1%를 추가해

95억원을 편성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체, 관광숙박업체, 관광이용시설업 등 관광업계 1,400개소를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 17억원을 편성했다.

전북도는 이날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는 9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의는 오는 9일부터 13일 사이 진행돼 오는 16일경에는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며 "과격적으로 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코로나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미래한국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서 제출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가운데), 이인희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들이 3일 법무부에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 코로나19 피해 따른 임대료 인하

### 민주, '착한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대응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세법 '착한 건물주'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 28일 코로나19 관련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중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건

물주) 임대료 50% 소득공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 가치세 대폭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행보다 2배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재위에서 여야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로 10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합의했다"며 "여야간 협상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 선거구획정위, 세종·화성·춘천·순천 '분구'

### 노원·안산 등은 통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독자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독자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한다고 밝혔다.

통합 선거구는 4곳이다.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을 갑·을로, 경기 안산시는 상록구갑·을과 단원구갑·을 등 총 4곳을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한다. 강원도와 전남은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 및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각 1개씩 축소한다. 강원도와 전남 모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된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 4847명이며 인구 하한은 여수시를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7068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시를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 3124명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여야가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자체적인 안 마련에 돌입했고, 이날 독자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회 제출된 선거구획정위 독자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1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 황세연 "환경오염 문제 해결 법안 발의할 것"

민생당 황세연 예비후보(익산 갑)가 잠점마을과 낭산 폐석산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발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세연 예비후보는 3일 익산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사항이 특이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잠점마을과 낭산 폐석산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발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예비후보는 "백제권 개발사업에 왕궁터 포함시키기, 이리역 폭발사고 손해배상 청구, 복환환 승역사 건설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김성중 "경선결과 승복, 승리에 힘 보탬 것"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성중 예비후보(익산 을)가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중 예비후보는 "최선을 다했기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려 한다"면서 "그동안 한결 같이 응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후원에 힘입어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면서 "비록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탬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 박희승 "친환경 천연가스버스 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가 남원 지역에 친환경 버스운송수단인 천연가스버스(CNG)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입축천연가스 버스는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으로 서울과 전주, 군산 등 도시 지역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지만, 남원지역은 CNG충전소 미비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남원에 CNG충전소를 유치해 지역에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될 수 있게 해 청정 지리산 남원의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강래, 서남대 부지 활용방안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폐교된 서남대부지의 활용방안으로 전북대와 함께 글로벌 농업개발 캠퍼스조성사업을 추진 공약을 밝혔다.



그는 전북대가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맞추어 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재원을 활용, 글로벌 농업개발캠퍼스를 조성해 개도국의 젊은 인재들에게 우리나라의 선진농업기술을 교육·전수시킨다는 구상이라고 밝히며, 전북대와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에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이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반

### 안호영 "소상공인 탄탄한 자립기반 조성"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원주·진안·무주·장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탄탄한 자립기반 조성을 약속했다.



안 예비후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면 하는 바람"이라고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외적인 변수에 따른 매출감소가 잦은 만큼, 재선시 이들의 자립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는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임정엽 "일 안하는 국회의원, 세비 깎아야"

임정엽 국회의원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3일 원주군 봉동읍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추진 의지를 보인 임 예비후보가 내세운 사실상 2번째 공약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별취재반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